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Maternal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 on Children's Empathy: The Mediating Effects of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1차원고접수: 2025.01.05. 수정원고접수: 2025.03.05. 최종게재결정: 2025.03.24.

박찬영¹ · 임정하²

¹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석사

²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Park, Chanyoung¹

Lim, Jungha²

¹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²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 300쌍이었다. 공감적 양육태도, 공감능력, 애착 및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t 검정, Cohen의 d ,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그 결과, 첫째, 아동의 타인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높았다. 둘째, 남아집단과 여아집단 모두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아집단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각각 개별적으로도 매개하였고, 남아집단에서는 이들의 관계를 애착만 개별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성별을 고려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 공감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애착, 정서조절능력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maternal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s influence children's empathy through the mediating roles of attachment to their mothers and emotional regulation. The study was grounded in Stern and Cassidy's (2018) 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Participants included 300 pairs of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from a metropolitan area in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paper-based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through t -tests, Cohen's d , Pearson's correlation analyses, and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regulation of others and empathy, with girls demonstrating higher levels than boys. Maternal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s were found to influence girls' and boys' empathy throug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erial mediation process involving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For girls, both the indirect effects of attach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were significant, while for boys, only the indirect effect of attachment reached significance. These results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veloping targeted interventions to foster empathy in children,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gender-related factors.

Keywords 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mpathy, empathetic parenting attitude, attachment, emotional regula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상황과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하여 공감적 이해와 반응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Hoffman, 198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은 친사회성 발달의 기초를 형성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논문(2025)을 수정 보완한 것임.

Corresponding to 임정하 (Lim, Jungha)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E-mail: jhlim@korea.ac.kr

Copyright © 2025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며(Hoffman, 2001)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사회적 역량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Allemand, Steiger, & Fend, 2015; Zhou et al., 2002).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공감능력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정의되어 왔다. 최근 연구들(정진화, 민가혜, 2023; Jami, Walker, & Mansouri, 2024)에서는 공감능력이 이들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여 공감능력을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이해하여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고 타인의 정서와 행동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공감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권지웅, 박종효, 2020; Pang, Li, Zhou, Gao, & Han, 2023).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나, 이러한 성차가 나타난 경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감능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에 이르는 경로가 성별에 따라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각 집단의 공감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 발달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동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아동의 공감능력은 개인이 경험하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Zahn-Waxler, Sdhiro, Robinson, Emde, & Schmitz, 2001). 그 중에서도 부모는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이다(현혜정, 2020; Barnett, King, Howard, & Dino, 1980; Howe, 2012). 아동은 가장 친밀한 대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관찰하고 모델링하며 사회정서적 역량을 발달시킨다(Thompson, 1987).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공감적 양육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공감적 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의 정서와 행동을 세심하게 이해하고 자녀의 정서를 함께 느끼며 따뜻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의미한다(Kalliopuska, 1984). 선행연구(Mazzone & Nader-Grosbois, 2017; Tully, Donohue, & Garcia, 2015)에 따르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공감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를 이해하고 반응할 때 아동은 자신의 정서가 공감받았음을 느끼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배선미, 최영희, 2014). 반면, 아버지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공감능력보다는 긍정적인 또래 관계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 Emery, Ravindran, & McElwain,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영향력에 주목하여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이론적 모델(attachment theoretical model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은 부모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구조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유용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이 모델은 애착이론의 관점에서 부모의 민감성을 기반으로 한 공감적 양육태도가 애착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애착은 내적 작동모델이나 부모-자녀 간의 대화, 정서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들 각 메커니즘의 중요도는 발달 단계마다 변화될 수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정서조절능력이 애착과 공감능력을 연결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전전두엽 피질은 유아기 때보다 성숙해져 정서를 더욱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며(Martin & Ochsner, 2016) 정서조절 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필수 요소인 작업 기억, 주의 집중력 등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어 정서를 능숙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정서조절능력이 발달한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에 타인의

부정적인 정서에도 적절하게 반응하며 타인 지향적인 공감을 발달시킬 수 있다(Eisenberg & Fabes, 1990). 이를 미루어보아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의 정서조절능력은 애착과 공감을 연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는 발달 시기를 고려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이 공감능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설적 경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어머니와 형성된 애착의 유형에 따라 아동의 공감능력에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애착이란 주 양육자와 아동 사이에 형성되는 강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를 의미한다(Bowlby, 1969). 어머니가 아동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아동은 어머니에게 안정애착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Ainsworth, 1969). 아동은 안정애착을 기반으로 사회적 감정과 대인관계를 발달시킨다(Shamay-Tsoory & Lamm, 2018). 특히, 선행연구(김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2013; 이평화, 신유림, 2018; McDonald & Messinger, 2012)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이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을 경험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안정애착은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을 촉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Stern과 Cassidy(2018)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애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메커니즘 중 정서조절능력에 주목했다. 정서조절능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수정 및 평가하여 정서의 강도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Thompson, 1994). 공감하는 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것이기에 공감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이평화, 신유림, 2018). 정서를 잘 조절하는 아동은 타인

의 정서를 더 잘 인식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공감 반응을 보이며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애착이론에 따르면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형성한 안정감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토대가 된다(Bowlby, 1969).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어머니와 함께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정서조절능력을 내면화한다. 선행연구(Panfile & Laible, 2012)에서는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이 뛰어난 정서조절능력을 보였으며 이는 다시 아동의 공감능력을 설명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미루어보아 아동이 어머니에게 애착을 안정적으로 느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우수하며, 정서조절능력은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ern과 Cassidy(2018)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과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로를 추가로 검토하고자 한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공감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하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하게 되며 정서를 조절하여 당면한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Manczak et al., 2016). 반면, 어머니로부터 방치나 학대 등 부정적 양육 경험을 가진 아동은 정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여 정서에 대한 과소 조절이나 과대 통제로 인해 정서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Paivio & Laurent, 2001). 선행연구(김명진, 이숙, 2015; 이진경, 전귀연, 2021)에서도 어머니의 공감적 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나 정서조절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를 미루어보아 어머니의 공감적이고 지지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경로를 추가하여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서 성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선

행연구(이경숙, 김영숙, 2017; López-Pérez & Pacella, 2021)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유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공감능력 수준이 일관되게 높게 나타났다. 공감능력(정지숙, 이진숙, 2023)에서는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들을 통해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정서조절능력과 공감능력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송운주, 2023)와 아동의 애착(이현주, 2023; Euler, 2020)에서는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각 요인의 성차를 알아보고 이들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 후, 아동의 성별에 따라 집단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 성차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남녀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300쌍이었다.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전화로 연구 참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편의 표집하였다. 연구대상 중 남자는 141명(47.0%), 여자는 159명(53.0%)이었으며 5학년이 156명(52.0%), 6학년이 144명(48.0%)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3세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122명(40.7%)으로 가장 많았으며 2 ~ 3년제 대학 졸업 88명(29.3%), 고등학교 졸업 56명(18.7%), 대학원 이상 27명(9.0%), 기타 7명(2.3%)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수화(2019)가 개발한 가족공감 척도 중 부모용(부모-자녀)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16문항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요인(5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여 정서를 지각하고 자녀의 사고 방식에 맞추어 자신의 관점을 조율하는 것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등이 있다. 정서 요인(5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와 느낌을 대리 경험하여 그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갖게 되는 상태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등이 있다. 표현 요인(6문항)은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녀와 동일한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아이가 슬퍼할 때, 그 슬픔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편이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

점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양육태도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수화의 연구(2019)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했으며 부모용(부모-자녀) 척도의 Cronbach's α 는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인지 .81, 정서 .68, 표현 .81, 전체 .88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애착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부모 및 또래 애착 검사(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를 유성경, 박승리와 황매향(2010)이 한국 초등학교생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어머니 애착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25 문항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 요인(10문항)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상호적 이해와 존중을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우리 엄마는 내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등이 있다. 의사소통 요인(9문항)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대화에서 어머니가 자신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느끼는 정도를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내가 걱정하는 일들에 대해 엄마의 의견을 듣고 싶다.' 등이 있다. 소외 요인(6문항)은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정적 정서적 경험과 어머니의 관심 및 지지 부족에 대한 인식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엄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의 총점 산출 시 소외 요인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며 소외감을 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유성경과 동료들의 연구(2010)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체 Cronbach's α 는 .9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신뢰 .85, 의사소통 .79, 소외 .75, 전체 .91로 나타났다.

3)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문용린(1996)이 제작한 정서지능 검사 중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했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15문항으로 다음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정서조절 요인(8문항)은 아동이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하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감소시키려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우울할 때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타인정서조절 요인(7문항)은 아동이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나는 늘 웃으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3점)'의 Likert식 3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윤정의 연구(1997)에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정서조절 척도의 Cronbach's α 는 .84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자기정서조절 .71, 타인정서조절 .68, 전체 .78로 나타났다.

4) 아동의 공감능력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Auyeung과 동료들(2009)이 제작한 아동용 공감지수 검사(Children's versions of the Empathy Quotient; EQ-C)를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과 이승복(2011)이 한국 초등학교생용으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 22문항으로 다음의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 공감 요인(5문항)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인식하고 수용하는 마음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누군가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 하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등이 있다. 정서공감 요인(8문항)은 아동이

다른 사람을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정서 반응과 관련된 능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이 울거나 고통받는 것을 보면 슬퍼진다.’ 등이 있다. 사회기술 요인(9문항)은 아동이 학교생활이나 또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행동 경향을 평가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해도 눈치채지 못하고 얘기하곤 한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의 총점 산출 시 사회기술 요인을 역채점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이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공감적인 반응을 자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화정과 동료들의 연구(2011)에서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Cronbach's α 는 인지공감 .67, 정서공감 .76, 사회기술 .77, 전체 .8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인지공감 .64, 정서공감 .77, 사회기술 .75, 전체 .78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K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KUIRB-2024-0227-01)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조사 전 설문지의 타당성과 절차상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2024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모집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여 연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15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모집공고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연구에 협조해 줄 담임교사에게 연구내용과 절차에 대하여 전화를 통해 구두로 설명한 뒤 연구참여 설명서와 모집공고문, 동의서 등이 포함된 패키지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후 담임교사를 통해 패키지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동의 어머니에게 연구참여에 대해 문의했다. 아동과 어머니가 연구참여

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아동과 어머니의 연구참여 동의서 및 승낙서에 각각 서명한 후 이를 아동 편에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응답은 각각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 아동과 어머니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답례품을 전달했다. 예비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75쌍이 회수되었으며, 설문지의 쌍을 맞추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6쌍을 제외하고 69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 응답 방식의 어려움과 절차상의 문제 여부, 소요 시간 등을 검토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조사는 2024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 6학년 아동과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예비조사와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되었다. 본조사에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 251쌍이 회수되었으며, 설문지의 쌍을 맞추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0쌍을 제외하고 231쌍의 질문지를 분석에 사용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진행되었으므로, 최종 분석에서는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회수된 아동용 설문지와 어머니용 설문지를 모두 포함하여 활용하였다. 총 326쌍 중 설문지의 쌍을 맞추지 못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6쌍을 제외하고 총 300쌍(92.0%)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7.0과 PROCESS macro version 4.2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했다. 둘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성차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한 후 성차의 실질적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Cohen's d 값을 산출했다. 셋째, 연구 변인 간의 관련성은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확인했다. 넷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

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Hayes, 2017)을 사용했다.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적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했다.

III.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성차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성차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정서조절능력의 전체 평균은 2.41($SD = 0.32$)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의 경우 타인정서조절($M = 2.44$, $SD = 0.36$)이 자기정서조절($M = 2.38$, $SD = 0.38$) 보다 평균이 높았다. 이는 아동이 주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경향이 자기정서조절 경향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의 전체 평균은 3.24($SD = 0.35$)이며 하위요인은 사회기술($M = 3.45$, $SD = 0.44$), 정서공감($M = 3.11$, $SD =$

0.55), 인지공감($M = 3.08$, $SD = 0.56$) 순으로 평균이 높았다. 즉 아동은 주로 사회적 상황에서 부정적 행동 경향이 낮음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한 결과,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 중 타인정서조절에서 여아 집단($M = 2.50$, $SD = 0.36$)이 남아 집단($M = 2.38$, $SD = 0.36$)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t = -2.98$, $p < .01$, Cohen's $d = .33$). 성별의 효과 크기는 중간 크기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들이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남아들보다 우수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감능력은 여아집단($M = 3.32$, $SD = 0.35$)이 남아집단($M = 3.15$, $SD = 0.34$)보다 평균이 유의하게 높았다($t = -4.25$, $p < .001$, Cohen's $d = .49$). 성별의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의 하위요인별 성차는 정서공감($t = -3.78$, $p < .001$, Cohen's $d = .44$)과 사회기술($t = -4.28$, $p < .001$, Cohen's $d = .49$)에서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두 요인 모두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에게 공감을 더 잘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는 정서공감과 이를 공감적인 행동반응으로 표현하는 사회기술에서 남아보다 더 우수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변인	전체 ($n = 300$)	남아 ($n = 141$)	여아 ($n = 159$)	t	Cohen's d
	$M (SD)$	$M (SD)$	$M (SD)$		
공감적 양육태도	4.26 (0.41)	4.23 (0.40)	4.28 (0.43)	-1.14	.12
애착	3.28 (0.42)	3.28 (0.42)	3.28 (0.42)	0.10	.01
정서조절능력	자기정서조절	2.38 (0.38)	2.40 (0.36)	0.81	.11
	타인정서조절	2.44 (0.36)	2.38 (0.36)	-2.98**	.33
	전체	2.41 (0.32)	2.39 (0.31)	-0.03	.12
공감능력	인지공감	3.08 (0.56)	3.09 (0.54)	0.27	.04
	정서공감	3.11 (0.55)	2.98 (0.55)	-3.78***	.44
	사회기술	3.45 (0.44)	3.34 (0.42)	-4.28***	.49
	전체	3.24 (0.35)	3.15 (0.34)	-4.25***	.49

주. 소의 요인은 역코딩하여 산출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소외를 덜 느낀다는 것을 의미함. 사회기술 요인은 부정적 행동 경향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코딩하여 산출한 점수이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행동 경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함.

** $p < .01$. *** $p < .001$.

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연구 변인들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남아집단과 여아집단으로 표본을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참고). 어머니가 공감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일수록 어머니에 대한 남녀 아동의 애착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아: $r = .19, p < .05$, 여아: $r = .33, p < .001$). 남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의 관계는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며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24 \sim .67$). 반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 관계는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여아 집단의 경우, 공감적 양육태도는 정서조절능력($r = .26, p < .001$) 및 공감능력($r = .23,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남아 집단의 경우, 공감적 양육태도는 정서조절능력이나 공감 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을 위해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사용했다. 먼저, 남아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남아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으로 공감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9.60, p < .001$), 그 설명력은 38%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3, p = .571$), 애착($B = .17, p < .01$)과 정서조절능력($B = .57, p < .001$)은 공감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1 참고).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되었듯이,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3[-0.081, 0.146]$ 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애착이 매개하는

표 2.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 간의 관계

	1	2	3	4
1. 공감적 양육태도	-	.19*	.08	.12
2. 애착	.33***	-	.32***	.38***
3. 정서조절능력	.26***	.24**	-	.59***
4. 공감능력	.23***	.36***	.67***	-

주. 남아 표본($n = 141$)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위쪽, 여아 표본($n = 159$)의 상관계수는 대각선 아래쪽에 제시하였음.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41$)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Adj R^2$	F
					LL	UL		
정서조절능력	애착	.20	.09	2.32*	0.030	0.378	.03	5.38***
	공감적 양육태도	.02	.06	0.29	-0.108	0.146	.09	7.69***
공감능력	애착	.23	.06	3.78***	0.110	0.350		
	공감적 양육태도	.03	.06	0.57	-0.081	0.146		
	정서조절능력	.17	.06	2.89**	0.052	0.278	.38	29.60***
		.57	.08	7.47***	0.418	0.719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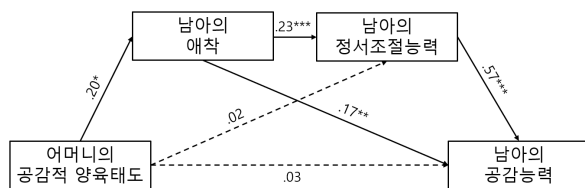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4.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N = 141$)

	Effect	S.E.	t	95% CI	
				LL	UL
총효과	.10	.07	1.46	-0.037	0.244
직접효과	.03	.06	0.57	-0.081	0.146
간접효과					
전체	.07	.04		-0.013	0.147
X → M1 → Y	.03	.02		0.002	0.073
X → M2 → Y	.01	.04		-0.064	0.084
X → M1 → M2 → Y	.03	.02		0.002	0.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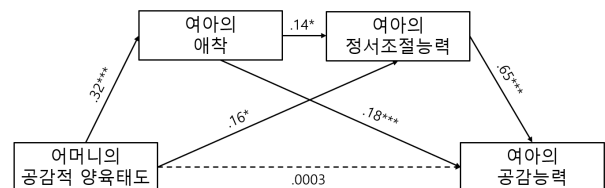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공감적 양육태도, M1: 애착, M2: 정서조절능력, Y: 공감능력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 $p < .05$. *** $p < .001$.

그림 2.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표 5.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 ($N = 159$)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t	95% CI		Adj R ²	F
					LL	UL		
애착	공감적 양육태도	.32	.07	4.32***	0.173	0.464	.10	18.65***
정서조절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16	.06	2.51*	0.033	0.279	.08	8.00***
	애착	.14	.06	2.13*	0.010	0.261		
공감능력	공감적 양육태도	.0003	.05	0.01	-0.099	0.100	.48	48.97***
	애착	.18	.05	3.42***	0.074	0.277		
	정서조절능력	.65	.06	10.20***	0.523	0.774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 $p < .05$. *** $p < .001$.

간접효과는 .03[0.002, 0.073],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3[0.002, 0.06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반면, 정서조절능력을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1[-0.064, 0.08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남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관계를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남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여아집단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

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여아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으로 공감능력을 설명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 = 48.97, p < .001$), 그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B = .0003, p = .995$), 애착($B = .18, p < .001$)과 정서조절능력($B = .65, p < .001$)은 공감능력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2 참고).

표 6.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검증 ($N = 159$)

	Effect	S.E.	t	95% CI	
				LL	UL
총효과	.19	.06	2.94**	0.061	0.310
직접효과	.0003	.05	0.01	-0.099	0.100
간접효과					
전체	.19	.04		0.103	0.264
$X \rightarrow M1 \rightarrow Y$	.06	.02		0.019	0.106
$X \rightarrow M2 \rightarrow Y$	.10	.04		0.020	0.182
$X \rightarrow M1 \rightarrow M2 \rightarrow Y$	.03	.02		0.001	0.062

주. CI-Confidence Interval; LL-Lower Limit, UL-Upper Limit.

X: 공감적 양육태도, M1: 애착, M2: 정서조절능력, Y: 공감능력

** $p < .01$.

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003[-0.099, 0.100]으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개별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공감적 양육태도와 여아의 공감능력의 관계를 애착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6[0.019, 0.106],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10[0.020, 0.182],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간접효과는 .03[0.001, 0.06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여아가 인식하는 어머니와의 안정애착 관계 또는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여아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경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 모형을 구축하였다. 즉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남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 공감능력에서 성차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가 아동의 입장에서 정서를 이해하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어머니가 아동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감적 양육태도를 제공한다는 선행연구들(송윤주, 2023; 최영희,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공감하는 것은 타인의 정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개인 내적인 감정으로 자녀의 성별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어머니 자신의 성장 환경이나 성격 등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안미현, 2016). 따라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애착에서도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어머니와의 애착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서아라, 2015; 이현주, 2023; 임윤희, 2018; Bakermans-Kranenburg & Van Ijzendoorn, 2009; Del Giudice, 2019)과 같은 결과이다. Bowlby (1969)는 애착의 형성에서 부모의 마음 상태나 양육 행동과 같은 부모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동이 어머니에게 느끼는 애착에서의 차이는 성별에 기인하기보다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 환경, 부모와 아동 간의 상호작용의 질과 같은 다른 요인

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서조절능력의 경우, 타인정서조절 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더 우수하였다. 즉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남아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한 연구들(이경숙, 김영숙, 2017; 임연진, 이은경, 2010; López-Pérez & Pacella, 2021; Sanchis-Sanchis, Grau, Moliner, & Morales-Murillo, 2020)과 일치한다. 여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하며 타인의 정서를 섬세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한준아, 김지현, 2012). 이를 미루어 보아 여아는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정서를 보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남아보다 뛰어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공감능력은 평균적으로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타인의 정서를 자신의 정서처럼 느끼며 공감적인 행동을 더 자주 보였다. 이는 여아의 공감능력이 남아의 공감능력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유연경, 유미숙, 2012; 전은정, 2009; 정지숙, 이진숙, 2023; 홍유민, 최진아, 2018; Pang et al., 2023)들과 같은 결과이다. Lam, Solmeyer과 McHale(2012)는 공감능력의 성차가 유아기 때부터 관찰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 차이가 점점 커져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여아는 생물학적으로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데 수용적이어서 타인의 정서에 대해 남아보다 더 높은 공유능력을 갖는다는 주장(Eisenberg & Fabes, 1991)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표본을 분리한 상태에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아와 여아 모두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을 순차적으로 매

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의 공감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적인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한다. 즉 아동의 공감능력은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애착, 정서조절능력이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간의 관계에서 애착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고 수용적으로 반응할 때, 아동이 어머니와의 애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서선옥, 심미경, 2016)와 일치한다. 아동의 애착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안정적으로 느끼는 아동은 정서조절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공감성을 이끌어낸다는 선행연구(Panfile & Laible,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미루어 보아 어머니가 아동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감하는 경우, 아동은 어머니에게 애착을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며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에 미치는 개별 간접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남아로 하여금 어머니에게 안정애착을 느끼게 하여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조절능력을 경유한 경로에서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여아의 정서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공감할수록 여아는 어머니와의 애착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느끼며 이는 여아의 공감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는 여아가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타인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이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이를 인식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정서보다는 애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더 많이 수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을 발달해 나가는 경향이 있다(Berona et al., 2023). 반면, 남아는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정서 표현이 제한받는다고 느끼며 어머니보다는 같은 성별의 아버지나 또래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구하고 이를 통해 정서조절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Miller-Slough & Dunsmore, 2019). 이로 인해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을 통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공감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화된 양육 전략과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동의 공감능력을 촉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여아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해 어머니는 여아의 정서를 세심하게 이해하고 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긍정적인 정서 표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여아를 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정서 반영적 대화나 감정 코칭 기술, 공감적 양육태도를 실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남아를 대상으로 공감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와 더불어 또래나 아버지 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감능력 발달에 이르는 경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양육 및 교육적 개입에 있어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치는 과정에서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졌다. 지역별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든 아동에게 일반화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이 이루어진다면 아동의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보다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평소 생각과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 설문에 어머니가 직접 응답했다. 따라서 설문 문항에 바람직한 답변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어머니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관찰이나 심층 면접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애착 이론적 모델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검증한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아동의 공감능력의 개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모델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여 아동의 공감능력 발달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Stern과 Cassidy(2018)의 공감의 개인차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바탕으로 성별을 분리하여 어머니의 공감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감능력에 이르는 경로를 애착과 정서조절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영향력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의 공감능력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전략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곽윤정 (1997). 정서 지능의 발달 경향성과 구인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웅, 박종효 (2020). 초등학생의 공감, 친사회성 및 방어 행동의 관계에서 또래지위의 조절된 매개효과와 성차. *인간발달연구*, 27(3), 1-21.
- 김명진, 이숙 (2015). 부와 모의 공감능력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9(3), 1-18.
- 김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2013).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4(3), 129-150.
<https://doi.org/10.5723/kjcs.2013.34.3.129>
- 문용린 (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 배선미, 최영희 (2014). 어머니의 공감과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유아의 정서표현을 매개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3), 389-400.
<https://doi.org/10.7856/kjcls.2014.25.3.389>
- 서선옥, 심미경 (2016). 어머니의 정서표현수용태도 및 유아의 애착안정성과 정서조절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7(4), 1-15.
<https://doi.org/10.5723/kjcs.2016.37.4.1>
- 서아라 (2015). 학령기 아동이 지각한 애착과 또래 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윤주 (2023). 모(母)의 정서적 공감이 영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모-자녀 상호작용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미현 (2016). 유아의 놀이성 및 어머니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박승리, 황대향 (2010). 한국 초·중·고등학생용 부애착척도의 타당화 연구. *초등상담연구*, 9(1), 21-39.
- 유연경, 유미숙 (2012). 성별에 따른 아동의 공감능력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5(1), 17-32.
- 이경숙, 김영숙 (2017).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의 공감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이 반응적 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8), 439-451.
<https://doi.org/10.35873/ajmahs.2017.7.8.041>
- 이수화 (2019). 가족 내 공감 소통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경, 전귀연 (2021). 부모의 공감적 태도가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51-72.
<https://doi.org/10.21321/jfr.26.1.51>
- 이평화, 신유림 (2018). 아동기 부애착이 친구관계망과 친구 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6(2), 123-131.
<https://doi.org/10.6115/fer.2018.009>
- 이현주 (2023). 아동의 모 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 폰 의존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효과-.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연진, 이은경 (2010). 남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능력과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285-294.
<https://doi.org/10.5934/kjhe.2010.19.2.285>
- 임윤희 (2018). 아동의 부애착이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정 (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숙, 이진숙 (2023). 아동의 반력동물 애착과 또래관계간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 26(3), 275-289.
<https://doi.org/10.17641/KAPT.26.3.5>
- 정진화, 민가혜 (2023). 유아의 성취동기, 인지능력, 갈등해결능력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737-749.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14.737>
- 차화정, 김혜리, 이수미, 엄진섭, 이승복 (2011). 자기보고형 한국어판 아동용 공감지수(EQ-C) 척도의 타당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4), 63-81.
- 최영희 (2005). 놀이상황에서 보이는 어머니의 공감적 행동과 양육스트레스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3), 75-85.
- 한준아, 김지현 (2012).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1(4), 665-678.
<https://doi.org/10.5934/kjhe.2012.21.4.665>
- 현혜정 (2020).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유민, 최진아 (2018).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인성지향적 언어통제와 아동의 또래관계 간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9(2), 43-52.
<https://doi.org/10.5723/kjcs.2018.39.2.43>
- Ainsworth, M. D. S. (1969). Maternal sensitivity scales. *Power*, 6, 1379-1388.
- Allemand, M., Steiger, A. E., & Fend, H. A. (2015). Empathy development in adolescence predicts social competencies in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83(2), 229-241.
<https://doi.org/10.1111/jopy.12098>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Auyeung, B., Wheelwright, S., Allison, C., Atkinson, M., Samarawickrema, N., & Baron-Cohen, S. (2009). The children's empathy quotient and systemizing quotient: Sex differences in typical development and in autism spectrum condition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9, 1509-1521.
<https://doi.org/10.1007/s10803-009-0772-x>
-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2009). No reliable gender differences in attachment across the lifespa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2(1), 22-23.
<https://doi.org/10.1017/S0140525X0900003X>
- Barnett, M. A., King, L. M., Howard, J. A., & Dino, G. A. (1980). Empathy in young children: Relation to parents' empathy, affection, and emphasis on the feelings of oth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6(3), 243-244.
<https://doi.org/10.1037/0012-1649.16.3.243>
- Berona, J., Sroka, A. W., Gelardi, K. L., Guyer, A. E., Hipwell, A. E., & Keenan, K. (2023). Maternal socialization of emotion an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in early adolescent girls. *Emotion*, 23(3), 872-878.
<https://doi.org/10.1037/emo0001110>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No. 1). New York: Basic Books.
- Del Giudice, M. (2019). Sex differences in attachment styles.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25, 1-5.
<https://doi.org/10.1016/j.copsyc.2018.02.004>
- Eisenberg, N., & Fabes, R. A. (1990). Empathy: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relation to prosocial behavior. *Motivation and Emotion*, 14(2), 131-149.
<https://doi.org/10.1007/BF00991640>
- Eisenberg, N., & Fabes, R. A.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34-61). New York: Sage Publications, Inc.
- Euler, H. A. (2020). Gender differences in attachment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What is good for the goose may not be good for the gander.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22(1), 4-8.
<https://doi.org/10.1080/14616734.2019.1589055>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Hoffman, M. L. (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47-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 M. L. (2001). Toward a comprehensive empathy-based theory of prosocial moral development. In A. C. Bohart & D. J. Stipek (Eds.), *Constructive & destructive behavior: Implications for family, school, & society* (pp. 61-86). New York: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33-003>
- Howe, D. (2012). *Empathy: What it is and why it matters*.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 Hu, Y., Emery, H. T., Ravindran, N., & McElwain, N. L. (2020).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from maternal and paternal empathy to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34(7), 825-835.
<https://doi.org/10.1037/fam0000745>
- Jami, P. Y., Walker, D. I., & Mansouri, B. (2024). Interaction of empathy and culture: A review. *Current Psychology*, 43(4), 2965-2980.
<https://doi.org/10.1007/s12144-023-04422-6>
- Kalliopuska, M. (1984). Relation between children's and parents' empathy. *Psychological Reports*, 54(1), 295-299.
<https://doi.org/10.2466/pr0.1984.54.1.295>
- Lam, C. B., Solmeyer, A. R., & McHale, S. M. (2012). Sibling relationships and empathy across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 1657-1670.
<https://doi.org/10.1007/s10964-012-9781-8>
- López-Pérez, B., & Pacella, D. (2021). Interpersonal emotion regulation in children: Age, gender, and cross-cultural differences using a serious game. *Emotion*, 21(1), 17-27.
- Manczak, E. M., Mangelsdorf, S. C., McAdams, D. P., Wong, M. S., Schoppe-Sullivan, S., & Brown, G. L. (2016). "How did that make you feel?" influences of gender and parental personality on family emotion talk. *Merrill-Palmer Quarterly*, 62(4), 388-414.
<https://doi.org/10.13110/merrpalmquar1982.62.4.0388>
- Martin, R. E., & Ochsner, K. N. (2016). The neuroscience of emotion regulation development: Implications for education.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10, 142-148.
<https://doi.org/10.1016/j.cobeha.2016.06.006>
- Mazzone, S., & Nader-Grosbois, N. (2017). Variability and predictors of mothers and fathers' socialization behaviors and bidirectional links with their preschoolers socio-emotional competences. *Journal of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7(12), 621-653.
<https://doi.org/10.4236/jbbs.2017.712043>
- McDonald, N. M., & Messinger, D. S. (2012). Empathic responding in toddlers at risk for an autism spectrum

-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42, 1566-1573.
<https://doi.org/10.1007/s10803-011-1390-y>
- Miller-Slough, R., & Dunsmore, J. C. (2019). Longitudinal patterns in parent and friend emotion socialization: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emotion regula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9(4), 953-966.
<https://doi.org/10.1111/jora.12434>
- Paivio, S. C., & Laurent, C. (2001). Empathy and emotion regulation: Reprocessing memories of childhood abus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7(2), 213-226.
[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213::AID-JCLP7>3.0.CO;2-B](https://doi.org/10.1002/1097-4679(200102)57:2<213::AID-JCLP7>3.0.CO;2-B)
- Panfile, T. M., & Laible, D. J. (2012).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58(1), 1-21.
<https://doi.org/10.1353/mpq.2012.0003>
- Pang, C., Li, W., Zhou, Y., Gao, T., & Han, S. (2023). Are women more empathetic than men? Questionnaire and EEG estimations of sex/gender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8(1), 1-16.
<https://doi.org/10.1093/scan/nsad008>
- Sanchis-Sanchis, A., Grau, M. D., Moliner, A. R., & Morales-Murillo, C. P. (2020). Effects of age and gender in emotion regul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Frontiers in Psychology*, 11, 1-13.
<https://doi.org/10.3389/fpsyg.2020.00946>
- Shamay-Tsoory, S., & Lamm, C. (2018). The neuroscience of empathy—From past to present and future. *Neuropsychologia*, 116(Part A), 1-4.
<https://doi.org/10.1016/j.neuropsychologia.2018.04.034>
- Stern, J. A., & Cassidy, J. (2018). Empathy from infancy to adolescence: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s. *Developmental Review*, 47, 1-22.
<https://doi.org/10.1016/j.dr.2017.09.002>
- Thompson, R. A. (1987). Empathy and emotional understanding: The early development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119-14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A theme in search of defini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25-52.
<https://doi.org/10.2307/1166137>
- Tully, E. C., Donohue, M. R., & Garcia, S. E. (2015). Children's empathy responses and their understanding of mother's emotions. *Cognition and Emotion*, 29(1), 118-129.
<https://doi.org/10.1080/02699931.2014.898614>
- Zahn-Waxler, C., Sdhiro, K., Robinson, J. L., Emde, R. N., & Schmitz, S. (2001). Empathy and prosocial patterns in Young MZ and DZ Twins: Development an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In R. N. Emde & J. K. Hewitt (Eds.), *Infancy to early childhood: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developmental change* (pp. 141-16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Zhou, Q., Eisenberg, N., Losoya, S. H., Fabes, R. A., Reiser, M., Guthrie, I. K., Murphy, B. C., Cumberland, A. J. & Shepard, S. A. (2002). The relations of parental warmth and positive expressiveness to children's empathy-related responding and social functioning: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3), 893-915.
<https://doi.org/10.1111/1467-8624.00446>